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FTC, BP Amoco와 ARCO의 합병, 가솔린 등 석유제품 생산용 원유제품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쟁점화

당국은 소추에서 BP Amoco가 원유를 보다 싼가격으로 극동에 수출함으로써 미 서부연안에서 원유가격을 조절, 기업합병으로 원유선물거래를 부정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FTC는 2월 2일 BP Amoco p.l.c.와 Atlantic Richfield(ARCO)사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하여 연방지방법원에 예비적 중지청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해합병이 Alaska North Slope(ANS)원유의 탐색 및 생산, 서해연안에 있는 정유회사에의 원유판매, Oklahoma주 Cushing의 파이프라인 및 저장시설의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을 감살시키고, 이로써 북미(North America)에서의 가솔린 및 기타의 석유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유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BP Amoco와 ARCO의 합병계획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우리는 연방법원에서 BP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원유를 극동에 수출함으로써 동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서해연안에서 원유의 고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이 합병은 BP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고히 하고, 그리고 당해 합병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서해연안의 원유가격이 높게 된다고 하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켜 경쟁을 저해하게 되고, 당해 합병이 BP가 원유선물거래를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국내 원유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리챠드 G. 파카 FTC 경쟁국장은 언급했다.

FTC에 의하면, 제안된 합병계획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민간석유회사, 미국에서 제일 큰 석유생산 및 정제회사를 만들어내게 된다. 당해 합병은 알래스카의 North Slope(ANS) 원유회사를 제외하면 생산규모면에서 두번째로 큰 생산자이며, 공급의 상당부분을 알래스카 원유에 의존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의 정제소에 대한 ANS원유의 두개의 최대 공급자이다. 그러므로 당해 합병은 North Slope(ANS)에서의 채굴권의 리스입찰에서 가장 성공하고 있는 두 경쟁자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합병된다면 BP와 ARCO는 Oklahoma주 Cushing의 원유유통센타에 있는 석유파이프라인 및 저장시설에 지배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FTC는 언급했다.

위원회는 예비적 중지청구명령 재판에서, 만약 당해 합병이 허용된다면 BP가 ANS원유생산의 75%를 조절하게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동 효과는 서해안의 정제업자에 대한 ANS원유의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감소시키고, BP가 이미 행사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실질, 관련시장에서 시의적으로 적절한 그리고 효과적인 신규참입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당국은 언급했다.

FTC에 의하면, 서해안의 정제소는, 공급의 상당부분을 ANS원유만을 가공하는 것으로 예정, 이에 알맞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당국은 BP가 ANS원유의 대체가 불가능한 정제업자에게는 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반면 BP에 순응하는 정제업자에게는 저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정제업자간에 가격차별을 행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당국은 또한 BP가 서해안에 있어서

ANS의 공급을 제한하고, 서해안의 고객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하여 ANS를 저가격으로 극동에 수출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BP가 세계적인 규모의 원유시장보다 좁은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FTC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만약, 원유시장이 전세계의 원유공급을 다 포함한다면, 서해안에 수입원유가 유입되어, BP의 가격차별 및 수출전략을 타파할 수 있다고 당국은 말했다.

합병계획은 이미 고도로 집중화하고 있는 Oklahoma주 Cushing의 파이프라인 및 석유저장시설 시장에 있어서 시장집중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당국은 말했다. Cushing은 미국에 있어서 거대한 원유의 유통거점이다. 당해 합병후 BP는 Cushing에 있어 파이프라인 및 저장용량의 40% 이상을 지배하게 된다.

Cushing에서의 원유거래의 상당부분은 WTI(West Texas Intermediate)로 구성되어 있는데, WTI는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에서 시작되는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운송되고, Cushing에 운송되는 WTI원유는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선물거래되고 있다. Cushing에서 거래된 WTI원유 가격은 전세계 수많은 다른 원유가격의 형성 및 NYMEX 원유선물거래의 기준이 되고 있다.

FTC에 의하면, Cushing 및 그 주변 파이프라인 및 석유저장시설에 있어서의 효율적이고 경쟁적 기능은, Cushing에 있어서 거래활동과 NYMEX에 있어서 원유선물계약거래에 있어서의 거래쌍방간의 원활한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 파이프라인 또는 석유저장용량의 제한은 Cushing에 있어서 수송가능한 원유공급에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WTI 현금가격과 NYMEX 선물가격 두가지에 다 영향을 준다.

Cushing과 그 주변 파이프라인 및 저장시설에 대한 시장지배력은 BP가 Cushing에 있어서 수송가능한 원유공급을 제한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NYMEX의 원유선물거래 조작을 가능토록 한다고 당국은 말했다.

예비적 중지명령은 당해 합병의 적법성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결론이 날 때까지 합병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법원이 FTC의 주장을 인정하면, 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심판개시결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판개시결정은 행정심리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BP의 주된 사업소재지는 영국 런던에 있다. 미국에 있어서 주요한 사업소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다. ARCO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예비적 중지명령 제소는 위원회 표결에서 3대 2로 인정되었다. Orson Swinde와 Thomas B. Leary위원은 이에 반대하였다. Swinde와 Leary위원은 "우리는 이러한 절차의 장점이나 제안된 화해안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고 예비적 중지청구의 구제를 구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2000. 2. 2, FTC 발표

미 법무부, 신문용지산업 조사

미국 법무부는 신문용지 산업에서의 반트러스트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2월 17일, 법무부 대변인인 Jennifer Rose는 "우리는 신문용지 산업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공개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형사조사는 반트러스트국 클리블랜드 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클리블랜드 연방대배심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신문용지 가격인상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서 20여명 이상의 캐나다 신문용지 판매사원들을 소환하였다고 하였다. 신문용지 산업은 가격인상의 와중에 있으며, 1999년 중반 이후 7%가 오른 톤당 515달러까지 인상되었다고 동 신문은 보도하였다.

지난 주, 2개 몬트리올 주재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기업결합에 합의하였다. Abitibi-Consolidated Inc.는 40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및 주식을 제공하고 Donahue Inc.를 매수하는 데 합의하였는데, 이로써 세계 최대 신문용지 제조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Abitibi사와 Donahue사가 기업결합하게 되면 이 기업은 북미 신문용지 생산의 35%를 점하게 된다. 또다른 대형 신문용지 제조업체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Greenville에 소재한 Bowater Inc.는 17%를 점하고 있다고 동 신문은 밝혔다.

전미신문용지협회 발간 잡지인

Presstime지는 5대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북미 신문용지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 44%와 비교되는 수치라고 하였다. 신문용지 가격은 1994년 중반 톤당 420달러에서 1995년 4/4분기에는 평균 톤당 7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가격인상은 동 산업의 주요 고객인 대형 신문사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었다. 신문용지 가격은 1996년 1/4분기 이후 급격히 떨어졌으며 그 이후의 가격은 최고가에는 미치지 못했었다. 그러나 작년 3/4분기에 미국 동부 연안 지방에서 톤당 480달러였던 신문용지 평균가격이 10월 1일부터 톤당 50달러 인상되었다. Presstime지는 "분석가들은 2000년도에는 더욱 심한 공급부족과 가격인상이 있을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고 하였다.

올해에는 해외에서 신문용지 수요가 증대되고, 미국 내로의 수입이 감소하며, 몇몇 북미 신문용지 제조창은 폐쇄 내지 타업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동 잡지는 밝혔다. 또한 "산업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통합이 대형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의 기업결합을 통해서나 대형 제조업체들이 소규모 업체 및 독립적 제조업체들을 인수함으로써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동 잡지는 덧붙였다.

■ 2000. 2. 17, The New York Times

미 FTC, American Greeting사의 Gibson Greetings사 취득 인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merican Greetings Corp.가 제안한 Gibson Greetings Inc.의 취득을 완료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관련 회사들이 3월 2일 밝혔다. 미국 제2위의 카드회사인 American Greetings사는 1억 6,200만 달러 규모의 당해 취득이 "앞으로 며칠 내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 회사들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은 미국 반트러스트법상 당해 취득과 관련한 대기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하였다. Gibson사의 현 주식 전체에 대한 American Greetings사의 매입 제안은 3월 2일 저녁에 마감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American Greetings사는 동 제안을 3월 8일까지로 연장하였다고 밝혔다. 3월 1일 영업마감시에 총 1,580만 주의 Gibson사 주식 중 920만 주에 대해 매수청구가 이루어졌으며 철회되지 않았다고 American Greetings사는 발표하였다.

■ 2000. 3. 2, The New York Times

Nine West사, 구두가격고정 제소에서 화해

여성용 구두 제조업체인 Nine West Group이 3월 6일, 동 기업이 1988년 이후 위법하게 구두 가격을 고정하여 왔다고 주장한 연방 및 주 반트러스트 조사관들의 민사제소에 대한 화해금으로 3,400만 달러의 지불에 합의하였다. 정부 관리들은 이 3,400만 달러를 50개 주 및 기타 미국 영역간에 분배하여 여성의 보건,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동 합의는 앞으로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작년에 Jones Apparel Group이 취득한 Nine West사는 또한 연방 및 주 정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구두가격 책정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동 기업의 관행으로 인해 점포들간의 경쟁이 종료됨으로써 여성들은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여야만 하였다고 정부들은 밝혔다. 동 기업은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 문서로 된 성명을 통해 Jones Apparel사의 사장인 Jacki Nemerov는 "우리는 이번 화해가 상당한 법적인 변호 관련 지출과 경영시간의 소모를 회피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명백히 우리 회사의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동 기업의 법률적 어려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Jones Apparel사는 여전히 Nine West사의 브랜드제품을 구입하였던 수백만의 여성을 대리하여 제기된 집단소송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들 브랜드제품에는 Easy Spirit, Easy Angiolini, 9 & Co., Bandolino, Evan-Picone, Amalfi, Calico,

Pappagallo, Capenzio, Calvin Klein, Selby, Joyce 및 Westies가 포함되어 있다. Nine West사의 제품은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판매되는 구두 5개당 한 개꼴로 팔리고 있다. 이러한 구두의 대부분은 동 기업의 소매점이나 백화점에서 판매되는데, 이에는 Macy's, Bloomingdale's, Bon Marche, Lord & Taylor, Marshall Fields, Dillard's 및 Nordstrom과 같은 업체들이 포함되고 있다.

연방 및 주 반트러스트 조사관들은 소장에서 Nine West사가 백화점 및 기타 소매점들과 계약을 맺어 구두를 정해진 가격에 판매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Nine West사는 이들 점포의 구두가격 할인은 당해 점포와 Nine West사가 합의한 일정일자에만 행하도록 요구하였다. Nine West사 직원들은 이들 점포가 요구에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점검하였으며, 이들이 가격책정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구두제품의 선적을 중단하거나 할인판매 보전금액 및 광고의 대가로 이들 점포에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까지 하였다고 정부는 밝혔다.

최근 법원 판결들은 연방 반트러스트법을 약화시켜 기업들은 가격 통제를 더욱 많이 행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는 줄어들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기업은 소매업체들에게 합법적으로 판매가격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상점에 대해서는 상품 선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Nine West사는 미래의 구두가격에 대하여, 그리고 구두 할인판매가 가능한 기일 제한에 관하여 상점들의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정부는 주장하였다.

정부는 당해 위법행위가 1999년 6월 15일 Jones Apparel사의 Nine West사 취득 이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4개 주 -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 가 FTC와 함께 당해 조사를 주도하였다. 뉴욕주는 당해 화해에서 2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뉴욕주 법무장관인 Eliot L. Spitzer는 3월 6일, 당해 금액은 가정폭력 희생여성의 피난처, 유방암·자궁암 연구 및 유방암 진단 촬영과 같은 예방적 보건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Spitzer 장관은 "이는 모든 제조업체들에게 우리가 위법한 가격설정에 관한 합의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 2000. 3. 7,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제빵회사간 기업결합 인가

미국 법무부는 3월 20일, The Earthgrains Co.와 Metz Holdings Inc.간의 6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들이 중서부의 2개 샌드위치빵 브랜드를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인가하였다.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기업결합하는 경우 영양강화 밀가루를 사용하여 평평하고 속이 깊은 팬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산업계 관계자들이 백색 팬빵이라고 부르는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아이오와주 Des Moines, 미조리주 캔사스시티, 네브라스카주 Omaha에서의 경쟁을 상당히 감소시켰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기업은 아이오와주 및 캔사스주, 미조리주, 네브라스카주 및 일리노이주 일부에서 Earthgrains사의 Colonial 브랜드를, 그리고 캔사스주 및 미조리주 일부에서 Metz사의 Taystee 브랜드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들 기업은 아칸소주, 테네시주,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미시시피주, 앨라바마주 및 미조리주와 일리노이주의 기타 지역에서는 Colonial 브랜드를 계속 보유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및 노스 다코타주와 사우스 다코타주의 일부에서 Taystee 브랜드를 계속 보유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합의로 인해 정부는 이들 회사들에게 Earthgrains사의 Des Moines 제과점 및 이 지역의 흰빵 유통과 관련된 기타 자산을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매각이 없었다면 자녀가 있는 가족들 - 백색 팬빵의 주 소비자들 - 은 중서부 지역 상당부분에서 가격인상에 직면했을 것이다"라고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I. Klein은 말하였다. 반트러스트국은 원안대로의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한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당해 소의 화해를 위한 합의안 제안을 시카고 주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법원은 이 합의안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Earthgrains사는 전국적으로 43개의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 매출액은 19억 달러였다. 당해 합의안에서 다루어진 지방에서 동 기업은 Colonial 및 IronKids 브랜드 및 여타 사적 상표를 통해 백색 팬빵을 판매하고 있다. 아이오와 주 Sioux City에 본사를 두고 있는 Metz사는 일리노이 주 Deerfield에 소재한 Specialty Foods Corp.의 자회사이며 작년도 수입은 6억 달러 이상이었다. Metz사는 중서부 전역에 걸쳐 흰빵 판촉을 벌이며 이들 지역에서 Taystee, Pillsbury 및 Old Home 브랜드, 그리고 사적 상표를 통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

■ 2000. 3. 20, The New York Times

미 연방지방법원, MS사의 소송에 대해 독점금지법위반으로 판결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4월 3일 법무부와 19개의 각 주(원고)가 제소한 MS사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에서 MS사가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타적이고, 반경쟁적이며, 약탈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MS는 독점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PC의 OS(Operating System)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끼워팔기하였으며, 시장조정에 있어 배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지난해 11월 5일 미국 정부와, 19개의 각 주(원고)는 피고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의 잭슨 판사로부터 MS의 행위가 셔먼법 제1조와 제2조에 위반하는 독점금지법위반행위라는 예비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연방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예비판정때와 마찬가지로 MS사가 Web browser시장에서 독점화를 시도하고 반경쟁적 방법에 의해 독점력을 유지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였으며, 또한 PC의 OS에 Web browser를 불법적으로 끼워팔기 함으로써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잭슨 판사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혐의는 우선 MS는 컴팩, IBM 등 개인용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해 윈도를 기본 운영체제로 채택하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윈도를 판매하는 가격차등제를 실시했다. 또한 MS는 컴퓨터 칩 생산업체인 인텔에 대해 윈도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게는 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MS는 윈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검색기를 결합 무상공급함으로써 선발업체였던 넷스케이프를 인터넷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만약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윈도 공급도 중단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아직 최종적인 결론으로 지지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MS의 시장조정 효과는 셔먼법 제1조에 의해 확립된 판단기준에 따라 불법적인 배타적 태도로 해석되어진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잭슨 판사는 5일 독점금지법 위반판결을 받은 MS에 부과할 시정조치에 관한 공판을 5월 24일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신속한 결정을 위해 5월 28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잭슨 판사는 또 MS를 고소한 법무부와 19개 주 및 워싱턴 DC 등 원고측에 대해 "만약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면 원고들은 단일의 제재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원고측에게 오는 4월 25일, 늦어도 28일까지 MS에 대해 취할 제재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잭슨 판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MS는 오는 5월 10일까지, 그리고 법무부 등 원고측은 5월 17일까지 법원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잭슨 판사는 4일 "앞으로 60일 이내에 미국정부와 MS 양측으로부터 보강 증거나 증인채택 등을 접수받은 후 바로 시정조치를 확정짓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지법에 의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받은 MS에 대한 벌금부과, 영업제한, 기업분할 등 시정조치가 빠르면 올해안에 취해질 전망이다.

■ 2000. 4. 5, 워싱턴 포스트

E U

유럽위원회, MS의 윈도우즈 2000의 경쟁에 대한 영향 심사

최종 사용자(User)와 IT(Information Technology)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소기업(SMEs) 및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라 한다)의 경쟁자로부터 받은 정보에 근거하여 유럽위원회 경쟁총국은 MS사에 대해 EC경쟁법과 관련하여 윈도우즈 2000의 새로운 기술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 정보에 의해 유럽위원회는, MS사가 퍼스컴(PC)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서버(Server)운영체제시장 전체 그리고 성장되고 있는 e-비즈니스시장에까지 미치게 하는 방법으로 윈도우즈 2000을 설계했다는 주장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MS사는 윈도우즈 2000에 의해서 PC 운영체제에 자기의 서버 소프트웨어와 기타 MS사의 소프트웨어 제품(즉, back office 또는 security task관리와 같은 고객과 서버 운영체제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제공하는 "Middleware")을 끼워팔기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MS사의 경쟁자들은 Interface(사이를 접속)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상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PC운영체제에 있어서의 MS사의 지배적 지위가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와 Middleware시장까지로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신고에 따르면, PC용 윈도우즈 2000에 끼워져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는, 소비자는 사실상 서버이용을 위한 윈도우즈 2000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에서 얻은 정보의 결과, 위원회 경쟁총국은 이사회규칙 17/62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MS사에게 자료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유럽위원회는 윈도우즈 2000의 설계에 의해 발생된 EC경쟁법 위반에 관한 위의 주장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된다.

이번의 유럽위원회의 심사는 미국정부와 MS사 소송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미국의 소송과 유럽위원회가 신고에 의한 예비적 심사의 첫 단계와는 서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심사하기로 한 신고에는 MS사가 1개의 시장(PC 운영체제)으로부터의 지배력을 타 시장에까지 미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미국 소송절차의 주요한 요점(취지)은 MS사가 PC운영체제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지키기 위한 문제들이라고 보여진다.

MS사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고소되었는가? 위원회는 이 사건에 아직 어떠한 추궁도 행하지 않았다. 경쟁총국은 현재 예비적 심사단계에 있다.

위원회가 직면해 있는 신고에는 EC조약 제82조의 적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제82조는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기업에 의한 남용 및 배타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가 접수받은 신고에 의하면 MS사는 윈도우즈 2000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통합시 MS사의 제품만이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PC 운영체제에 자기의 서버 소프트웨어와 기타 MS사의 소프트웨어제품(Middleware)을 끼워팔기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MS사의 경쟁자들은 인터페이스(interface)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상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PC운영체제에 있어서 MS사의 지배적 지위가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버 운영체제소프트웨어와 Middleware시장에까지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고에 의하면 PC용 윈도우즈 2000에 끼워져 있는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는 고객은 사실상 서버용 윈도우즈 2000을 구입해야만 할 것이다. MS사는 이로써 PC 운영체제시장에 있어서의 명백하게 강력한 지위를 여기까지 확대시켜 서버시장에 대한 신규진입시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위원회는 의심의 여지없이 MS사와 그의 경쟁자로부터 e-commerce에 대하여도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서버소프트웨어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얻는 자가 누구든지간

에 역시 전자상거래(e-commerce)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 MS사의 윈도우 2000은 PC운영체제에 있어서의 MS의 지배적 지위의 영향을 서버운영체제에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e-commerce시장에서도 MS사를 유리하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 2000. 2. 10,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MCI-Sprint 기업 결합에 대해 본격조사 개시

유럽위원회는 2월 21일, MCI WorldCom사와 Sprint사간의 1,300억 달러 규모의 기업결합 제안에 대해, 당해 기업결합이 통신회사간 경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광범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4개월간의 상세한 반트러스트 조사를 개시하였다. 동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MCI WorldCom사와 Sprint사간의 기업결합 제안의 성사가능성에 대해 이것이 최고 수준의 인터넷 접속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기업결합에 대한 상세한 제2단계 조사 여부 결정을 위해 23일을 기한으로 잡았었는데, 이러한 제2단계 조사는 기업결합 중 단지 10%의 경우에만 진행된다. 작년 10월 발표되었던 당해 기업결합은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및 미국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사가 엄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미국의 2위 및 3위 장거리 통신회사간의 기업결합에서 야기될 고속 인터넷 "중추" 서비스에 관한 지배적 지위에 대한 우려 외의 다른 분야에 관해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 조사는 또한 당해 기업결합이 다국적 기업 대상 전화서비스 시장 및 미국-유럽간 전화통화에 미치는 영향도 살필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Sprint사가 지난 달 France Telecom사 및 Deutsche Telekom사와의 합작투자사업인 Global One에 대한 50%에 육박하는 지분을 매각한 것만으로는 유럽위원회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충분치 못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가 이끌고 있는 EU의 경쟁당국이 당해 기업결합을 상세한 조사대상에 올려놓을 계획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EU 당국은 1988년 당시 Karel Van Miert가 경쟁담당위원이었는데,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WorldCom사의 370억 달러 규모의 MCI사 취득에 관한 심사의 상당부분을 진행하였다. 동 위원회는 MCI사가 두 기업간의 중첩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인터넷 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중추" 사업부문만을 Cable & Wireless사에 매각하겠다는 MCI사의 당초의 제안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유럽위원회는 WorldCom MCI-Sprint 기업결합에 대한 표준적인 1개월간의 조사를 1월 11일 개시하였었으며, Sprint사의 Global One으로부터의 탈퇴 통지를 받은 이후 기한을 23일까지 연장하였었다. 동 위원회는 기업결합된 회사가 "최고 수준의 접속 시장", 즉 인터넷의 중추를 이루는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 접속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음을 또다시 우려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번째 우려사항은 기업결합된 회사가 BT사 및 AT&T사간의 50-50 합작사업인 Concert와 함께 다국적기업 대상의 전화 서비스 시장의 상당부분을 지배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당해 조사는 EU-미국 음성통화서비스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해 어떻게 영향받을 것인지를 또한 검토할 것인데, MCI WorldCom-Sprint사는 AT&T사와 함께 미국-유럽간 전화의 미국쪽 송·수신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00. 2. 21, Financial Times

유럽위원회, 볼보사의 Scania사 취득 금지

유럽위원회는 볼보사의 Scania 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회사 모두 스웨덴의 트럭, 버스 및 엔진 제조회사이다. 이번 결정은 대형 트럭, 도시버스, 도시간 버스 및 여행용 밴 관련시장에 관한 심도깊은 조사에 뒤이은 것이다. 동 위원회는 볼보사가 제안한 교정책이 Scania사 취득에서 오는 경쟁상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결론지었다. 볼

보사와 Scania사 모두 스웨덴 회사로서 유럽 및 여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주로 트럭, 버스 및 엔진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최초에 신고된 대로의 기업집중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형성함으로써 심각한 경쟁상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및 아일랜드의 대형 트럭 시장
- 핀란드 및 영국에서의 여행용 밴 시장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및 핀란드의 도시간 버스 시장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및 아일랜드의 도시버스 시장

볼보사 및 Scania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이들 시장 각각에서 매우 높아, 90%(스웨덴 대형 트럭 시장 및 핀란드와 아일랜드의 도시버스 시장)부터 50%(영국 여행용 밴 시장과 아일랜드 대형 트럭 시장)에까지 분포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모든 시장에서 대체로 비슷하며 당해 기업결합은 이들 시장 중 대다수에서 2개 최대 경쟁업체들을 결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 위원회가 수행한 시장조사는 볼보사 및 Scania사가 상호간에 가장 치열한 경쟁자였으며 현재도 강력히 경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들은 유사한 영업전략을 추진해 왔으며 뛰어난 품질과 믿을만한 A/S에 기반한 유사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당해 조사는 또한 이들 시장에서의 진입 및 영업확장에의 장벽이 매우 높음을 보였다. 이들이 기업결합할 경우 이들과 경쟁하고자 하는 업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관련시장에서 필요한 상당량의 자동차 생산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최대의, 그리고 가장 밀접한 경쟁업체를 제거함으로써 당해 기업결합은 시장구조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중대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2000년 2월 21일, 볼보사는 이러한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한 다수의 서약을 제안하였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었다 :

-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및 노르웨이에 소재한 볼보사 및 Scania사의 판매업체 및 A/S 네트워크, 그리고 아일랜드의 볼보사 네트워크 개방
- 덴마크 및 스웨덴에서의 버스 및 여행용 밴 차체 제작공장 3개소 매각

또한 볼보사는 중형 트럭에 사용되는 스웨덴 특유의 기술적 안전규정을 택시에 적용하는 일(택시 충돌 테스트)이 없도록 스웨덴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기로 제안하였다. 볼보사는 또한 핀란드의 자회사인 Carrus OY사로 하여금 볼보사의 경쟁업체들에게 버스 및 여행용 밴 차체를 공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른 시장 참여업체 및 회원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동 위원회는 제안된 서약은 Scania사 취득 제안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쟁상 우려를 해소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당해 서약들은 관련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경쟁업체들의 시장 접근을 그다지 용이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었다. 동 위원회는 또한 택시 충돌 테스트는 오직 스웨덴 정부에 의해서만 폐지될 수 있을 따름이라고 언급하였다. 볼보사 및 Scania사의 판매업체 및 A/S 네트워크 개방을 위해 제안된 조치들도 기업결합된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낮추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2000년 3월 7일, 볼보사는 새롭고 복잡한 '일괄적' 서약을 제출하였다. 동 위원회는 2000년 2월 21일 만료된 서약 제출기한 이후의 서약을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더욱이, 동 위원회가 최종결정을 위한 법정 기한(연장될 수 없음) 이전에 새로운 제안을 평가하고 의견을 청취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서약은 적시된 경쟁상 우려를 명백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두 긴밀한 경쟁업체들간의 기업결합 제안으로부터 초래될 경쟁상 우려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볼보사가 모든 경쟁상 우려를 제거할 서약을 제안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 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을 저지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 2000. 3. 14,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AstraZeneca/Novartis 계약 조사할 듯

유럽위원회는 3월 21일 AstraZeneca

사와 Novartis사가 자신들의 농화학 사업부문을 분리·통합하는 계약에 대하여 본격적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두 유럽의 제약회사는 12월 당해 사업부문 처리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들 두 부문을 합쳐 Syngenta사를 창립할 계획이었다. 경쟁담당 관리들은 시가총액 160억 달러인 세계적인 주도적 농화학제품 공급업체가 될 Syngenta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적시하였다.

두 기업 모두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으나 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당해 계약이 지난 12월 발표되었을 때 계약의 완성은 금년 하반기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관계자들은 비록 당해 계약 실행의 지연이 실망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관련회사들이 처음부터 장기적인 규제당국의 인가절차에 대비하여 왔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합 후 탄생하게 될 회사는 다수의 시장에서 활동할 것인데, 당해 계약의 복잡한 성격을 고려하여 관리들은 이의 검토를 위해 4개월의 추가적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이미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1개월간의 예비적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4개월간의 추가적 조사를 벌일 것이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2단계 조사에서는, 경쟁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과 같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통과하지 못한다.

AstraZeneca사와 Novartis사는 시장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높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거대한 시장지배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동 위원회에 자신들이 관계하고 있는 시장들의 복합적인 성격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각 회사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장간에는 약간의 중첩이 있으며 이들은 당해 기업결합의 인가를 얻기 위해 이들 영역에서의 새로운 의무부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화학 분야는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겪고 있으며, 이는 프랑스와 독일간 합작인 생명과학기업 Aventis사의 설립 및 Syngenta사의 설립계획에 의해 촉발되었다. American Home Products사도 자신의 농화학 사업부문인 Cyanamid를 30억 달러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사업부문 매수에 관한 선두주자는 독일 기업인 Bayer사라고 당해 논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Monsanto사와 Pharmacia & Upjohn사간의 기업결합 계획도 별도의 농화학 사업부문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매각 제안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수의 제약회사들은 농화학 사업부문의 제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생명과학이라는 개념-의약과 농업 연구간의 시너지를 획득하기 위한-의 유행이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 농업부문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제약회사들의 이윤 및 성장이 영향을 받았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이들의 주가는 폭락하였다.

■ 2000. 3. 9, Financial Times

일 본

공취위, 도청담합사건 관련 300개사에 배제권고

홋카이도청 발주의 농업토목공사를 둘러싼 입찰담합사건에서, 입찰에 참가한 토목공사업자 및 측량설계업자 중 적어도 100개사 이상이 17일까지의 공정취인위원회의 조사에서 도청 측이 사전에 낙찰업자를 결정하는 「할당」행위에 따라 담합을 반복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관계자의 말에 의해 밝혀졌다. 공취위는 3년간 약 600억엔 발주규모의 입찰에 관계된 약 300개 업체에 대하여 빠르면 3월중에라도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권고할 방침으로 마무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취위의 조사에 응하고 있는 토목공사, 측량설계업 관계자 및 도청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담합이 반복되었던 부분은 도 농정부가 아사히카와(旭川)시 등을 관할하는 가미카와(上川) 지청 내에서 발주한 관개배수정비사업 및 밭지대정비사업 등 농업토목공사와 측량, 지질조사 등이다. 적어도 1999년까지의 3년간 수주액은 총액 약 600억엔에 달하였다.

도 농정부가 지명업자의 수주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각 공사의 낙찰업자와 입찰예정가격을 가와카미

지청측에 지시하면, 가와카미 지청은 업계단체인 아사히카와 농업토목협회와 아사히카와 측량설계업협회에 도 농정부의 「할당」정보를 전달하였다. 두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은 업체는 입찰예정가격도 귀띔받아 그 가격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것을 다른 지명업체에 전달하면 다른 업체들은 연락받은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에 협력한다는 담합시스템이었다. 또한 도 농정부에서는 역대 기술감독이 각 업체의 연간수주목표액을 결정하는 등 「할당」을 총괄하고 있으며, 업체 및 업계단체에 낙하산인사로 부임한 농정부 전 간부가 조정역을 맡았다고 한다.

공취위는 각 업체 등의 구술 및 서면회답에서 똑같은 설명을 들은 듯하다. 공취위는 도 농정부 및 가와카미 지청이 조직적으로 담합에 관여하였던 실태를 중시하고 있어, 업체측에 배제권고할 때 도청측에도 담합의 재발방지 및 도에 의한 할당행위를 중지하도록 「문서요청」하여 반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배제권고의 대상이 될 예정인 약 300개사는 공취위가 작년 12월에 일본도로공단 발주의 고속도로 교량 지지대 등의 도장공사 입찰담합사건에서 배제권고한 295개사를 상회하여, 한번에 권고한 대상업체 수로서는 역대 최다가 될 전망이다.

공취위는 이번 사건에서 작년 10월에 도청, 도 가미카와 지청, 농업토목회사 등 합계 32개소를 현장조사하였으며, 그 후 도청 농정부장 및 동 부의 전 간부, 가미카와 지청의 담당직원들로부터 사정을 청취하는 등 담합의 실태해명을 진행하고 있다.

■ 2000. 2. 18, 요미우리신문

공취위, 주택용 부엌 관련 카르텔로 5개사에 과징금

공단주택용 부엌의 판매를 둘러싼 부당한 카르텔 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3월 3일 독점금지법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배제권고한 부엌제조회사 7개사 중 다카라 스탠다드사 등 5개사에 대하여 총액 3,568만엔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납부명령을 받은 업체는 그 외에 선웨이브공업, 벨테크노, 나스스테인레스(도쿄 시나가와(品川)구), 도오요오공업(기후(岐阜)현 세키(關)시)이다.

공취위에 따르면 이들 각 사는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공단주택과 도 운영주택용 부엌의 가격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가 사전에 회합을 개최, 판매비율 및 견적가격을 조작하였다. 공취위는 1999년 3월에 7개사에 배제권고하였으나, 크리나프사는 권고 수락을 거부하고 심판에서 계쟁중이며, 기간중에 수주가 없었던 미카도(오사카시)사는 납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카라 스탠다드, 선웨이브공업, 나스스테인레스 3개사는 「엄숙히 받아들여 명령에 좇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응하겠다」는 등으로 답하고 있다.

■ 2000. 3. 4, 일본경제신문